

광주, '미래의 먹거리' 3D프린터 선점하라

소재 개발·이용, 인력양성 담당 총괄 대표기관 필요

금형·LED 등 설계서 생산까지 원스톱 지원해야

정부가 최근 '3D프린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서면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3D프린터 산업 육성에 각 시·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형센터 등 3D프린터 활용도가 높은 산업을 지닌 광주시도 3D프린터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광주가 3D프린터 산업을 선점하려면 소재 개발 및 이용,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총괄 대표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호남지역 3D프린터 이용 현황=광주와 전남·북의 3D프린터 인프라는 타 지역보다 다소 잘 갖춰진 편이다. 광주·전남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호남권엔 현재 각 기관이 33대의 3D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이 31대, 경기 22대, 영남 35대임을 감안하면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3D프린터의 숫자는 많은 편이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 2대를 비롯, 전자부품연구원과 광주디자인센터, 한국과학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연구 목적을 위해 보유·활용 중이다. 또 호남대와 광주대 등도 3D프린터를 갖추고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 중이다.

광주전남중기청도 시제품 제작터에 3D프린터를 갖추고, 영세기업인의 활용을 돕고 있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보급비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3D프린터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실물의 입체 모양 그대로 찍어내는 기계. 어떤 제품 아이디어든 설계도만 있으면 플라스틱은 물론 고무·금속·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실물로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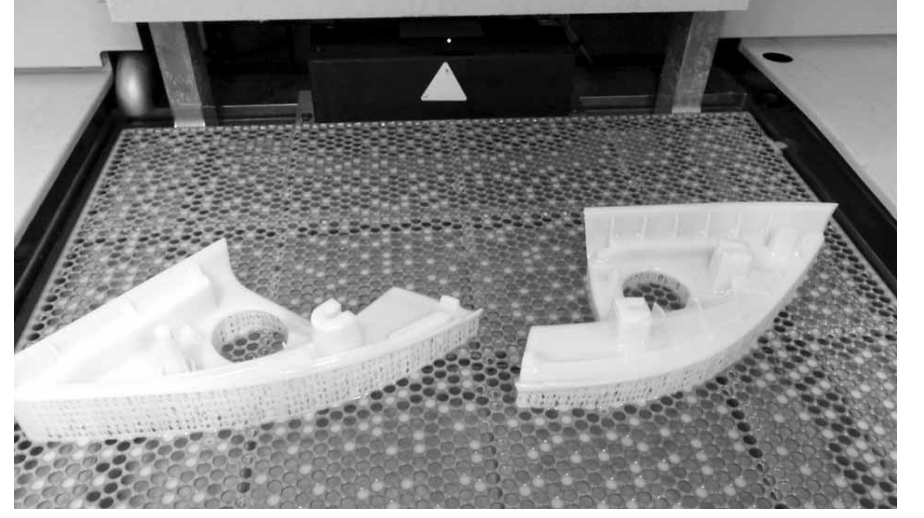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SLA(액상형)와 SLS(분말형) 2대의 프린터를 갖춘 광주전남중기청의 활용실적은 지난해 11기업 19건, 올해 15기업 36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3D프린터로 제작된 물품은 핸드폰 거치대, 미용기기, 리모컨케이스, 기능성 옷걸이 등의 기초적인 제품이었다. 3D프린터 또한 국내산이 아닌 외산품이 99%를 차지했다.

◇소재 개발 일부-인력 육성 전문=광

주지역에서 3D프린터 관련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생산기술연구원이다. 소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의 3D융합상용화센터에서도 금속과 세라믹 등 소재 연구가 일부 진행 중이다.

3D프린터는 사실상 국제특허가 풀려 있어, 하드웨어 개발엔 제한이 없다. 제작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프린팅에 쓸 수 있는 소재와 이를 일정하게 뽑아낼 수 있는 노즐 개발 등이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3D프린터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육성이 더디다. 현재 3D프린터와 관련, 교육이 가능한 기관은 지역에서 찾기 힘들다. 활용이 국한돼 있다 보니 장비의 작동시간도 짧을 뿐더러 결과물에 대한 공유도 힘들다. 3D프린터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선 장비 운영 방안은 물론, 네트워크



광주·전남중기청의 시제품 제작터에서 3D프린터를 이용해 시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광주·전남중기청 제공)

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광주과기원 강신호 박사는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광주지역 프린터 산업은 금형 시제품 생산이 일반적 경향"이라며 "LED 산업과, 전자부품, 금형 등 광주지역 기반 산업이 3D프린터와 맞닿아있는 만큼, 프린터를 이용한 설계도면 제작부터 생산까

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이어 "3D프린터산업을 큰 먹거리로 본다면 인력 양성 등 기초부터 산업동향과 새기술을 빠르게 도입하는 전문분야까지 총괄할 수 있는 대표기관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여유통 상가로 몰린다

경매 낙찰가율 2001년 이후 역대 최고치

주택 월세이율 하락·임대소득 감소 주원인

최근 상가가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기를 끌면서 법원 경매시장의 상업시설 낙찰가율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세이율 하락과 임대소득 과세 방침 등으로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매력력이 떨어지면서 상가가 여유통이 몰리는 것이다.

10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은 평균 64.2%로 이 업체가 경매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월 기준으로 상업시설의 낙찰가율은 2003년 최고 63.7%까지 올랐으나 이후 2005년 52.1%, 2009년 51.6%, 2011년 57.8% 등 50%대로 떨어졌다. 그러다 2013년 61.2%로 다시 60%를 넘기고 올해 들어 역대 가장 높은 64.2%로 올라섰다.

반면 경매에 부처진 상가 물건수(경매 진행건수, 이하 1~7월 기준)는 올해 들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에 가장 많은 3만 7946건이 경매에 부처졌으나 이후 2005년 3만3280건, 2009년 3만240건, 2012년 1만 9214건, 2012년 1만549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1만3145건을 기록했다.

경매 물건이 감소하면서 입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올해 상업시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평균 2.9명으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달 22일 입찰한 은평구 대조동의 한 근린상가는 무려 53명의 응찰자가 몰리면

서 감정이 19억4000여만원의 151%인 29억3900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하유정 연구원은 "국채 금융위기 이후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며 "물건이 줄어들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낙찰가율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가의 인기가 치솟는 것은 저금리 기조 속에 주택 월세 물량 증가로 임대소득이 감소하면서 상가 투자로 전환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연초 정부의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매력력이 줄어들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근린상가 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로 돈이 몰리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로도복권 (제610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14 18 20 23 28 36			33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516,018,375	4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8,941,537	34	
3 5개 숫자일치	1,676,690	1,398	
4 4개 숫자일치	50,000	71,718	
5 3개 숫자일치	5,000	1,218,676	



벌써 가을 옷 등장 10일 절기상 입추(立秋·지난 7일)가 지나면서 백화점 의류 매장에 가을 신상품이 대거 선보였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5층 매장에서 한 여성고객이 가을 트렌치 코트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한도에 파악할 수 있다

단통법 세부 고시 확정

'호갱님'(호구+고객) 근절과 소비자 이익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용 구입·이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단통법은 ▲ 휴대폰 보조금제 합리화 ▲ 보조금 분리 공시 ▲ 분리요금제 시행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27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보조금 상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에는 대리점·판매점이 공시금

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 혜택은 요금제에 비례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또 10월부터는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출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은 이동사 개별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합산돼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27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보조금 상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에는 대리점·판매점이 공시금

/연합뉴스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신속 처리

광주공정거래소, 신고센터 운영

광주공정거래사무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앞당겨 주기와 중소기업 자금지원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추석 이전, 기업들의 자금 수요 증가로 하도급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센터에 접수된 경우는 조정

을 의뢰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자진시정을 통한 대금 조기 지급과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과 자금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동반 성장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5월 100개 대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며 "조기 지급을 독려해 참여업체의 내역과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5P - 13층

- 실坪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5백만원

29P - 사무실 적합

- 실坪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오피스빌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

- 실坪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10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공동 투자 가능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 근저당으로 보장
- 월 10% 이상 이자 지급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